



5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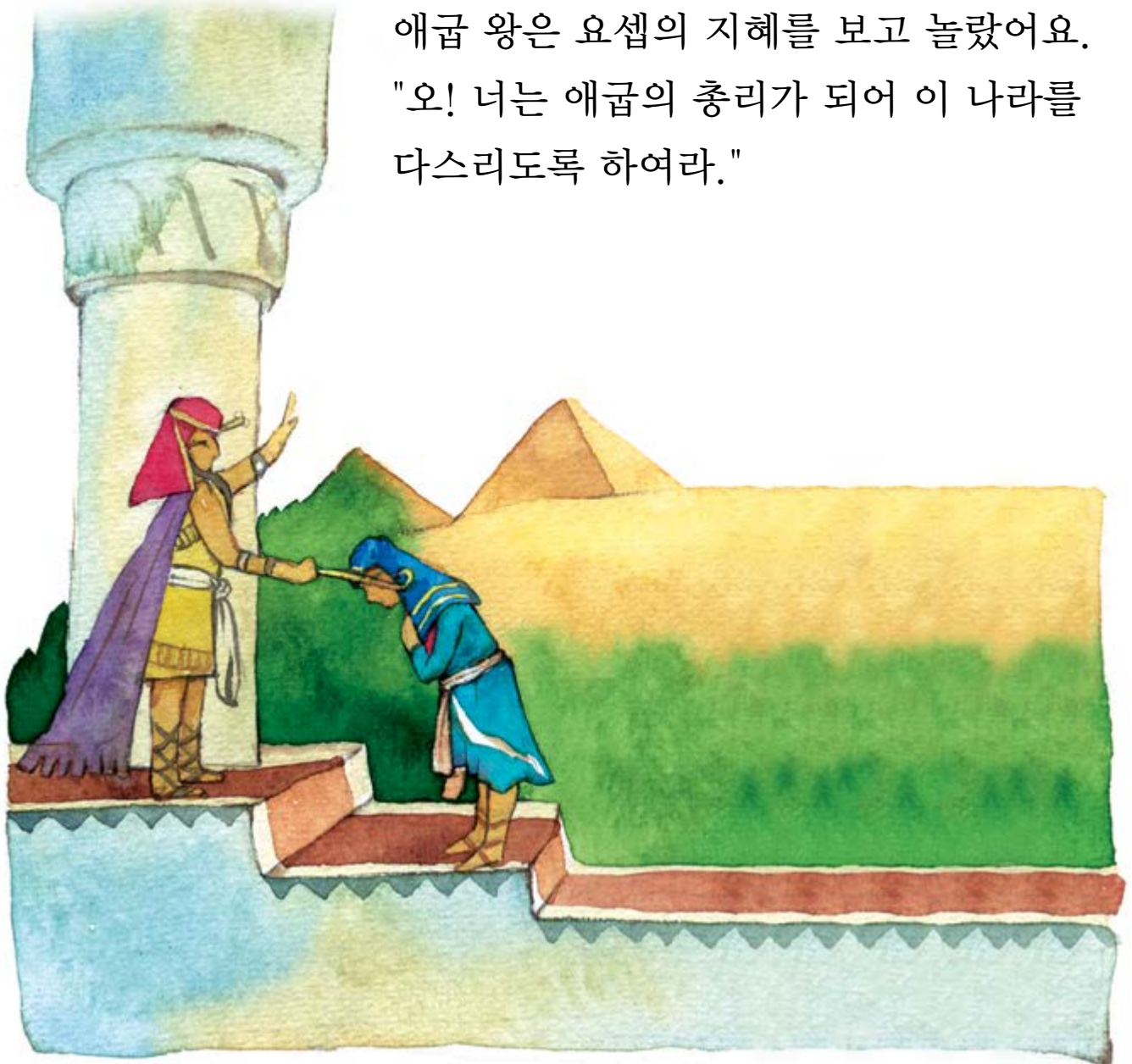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멀리 애굽 나라까지 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많은 일을 맡겼지요.  
어느 날,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나중에 왕의 두 신하도 감옥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두 신하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께 드리는 꿈을 꾸었어."  
요셉이 말했어요. "곧 감옥에서 나가게 될 거예요."  
다른 신하도 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빵을 담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빵을 다 먹어 버렸어."  
"이런, 당신은 곧 죽게 될 거예요."  
얼마 후, 두 신하는 요셉의 말대로 되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일곱 마리의 살찐 소가 일곱 마리의 마른 소에게 잡아 먹히는  
꿈이었어요. 아무도 그 꿈을 풀어내지 못했어요.  
"왕이시여, 요셉은 그 꿈을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당장 요셉을 부르고 꿈에 대해 물었어요. 요셉이 대답하  
길 "그 꿈은 칠 년의 풍년 후에 칠 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뜻  
합니다.

애굽 왕은 요셉의 지혜를 보고 놀랐어요.  
"오!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여라."



요셉의 말대로 칠 년 동안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되었어요.  
가나안에 사는 야곱이 아들들을 불렀어요.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오너라."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도착해 요셉을 만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님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두 애굽에서 살게 하였답니다.



# 생각하는 아이

## 잘 자라기 위해서는 아픔도 필요해요

엄마가 나무 아래쪽에 있는 어린 잎사귀들을 뜯고 있었어요.

"엄마! 소망이가 아플 것 같아요. 왜 잎사귀를 뜯으시는 거예요?"

"응, 줄기가 튼튼하게 잘 자라려면 햇볕을 잘 받지 못하는 어린 잎사귀들은 뜯어줘야 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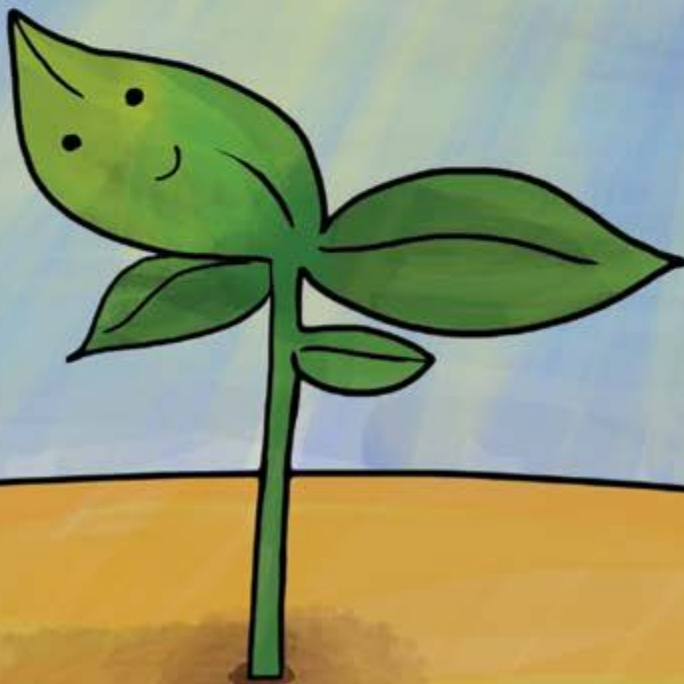


"남우도 엄마한테 혼날 때 있지? 엄마가 남우를 미워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그래, 엄마는 남우를 사랑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자라도록 벌도 주는 거야."  
"그럼, 소망이가 지금은 좀 아프겠지만 더 튼튼하게 자라겠  
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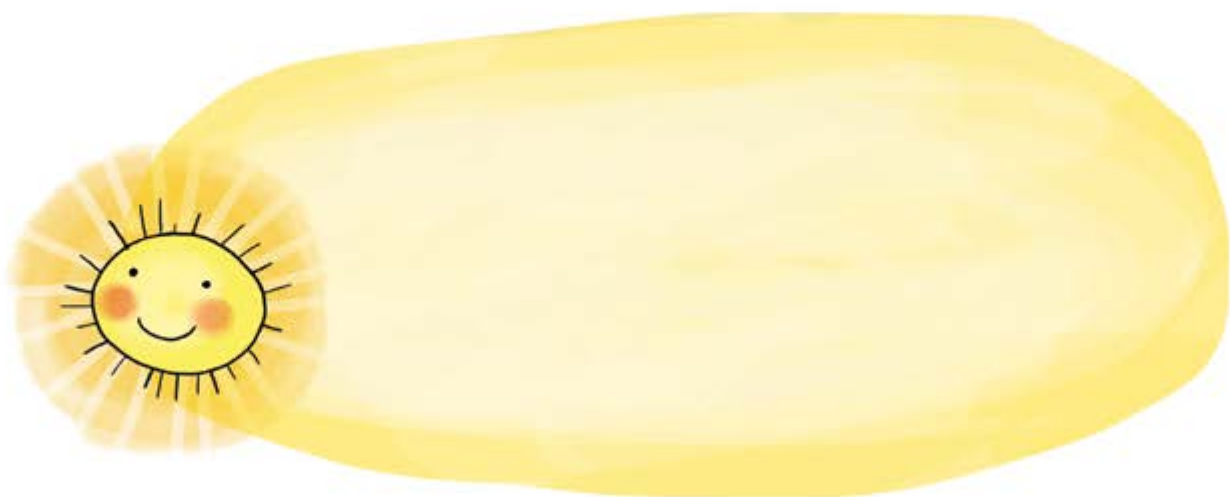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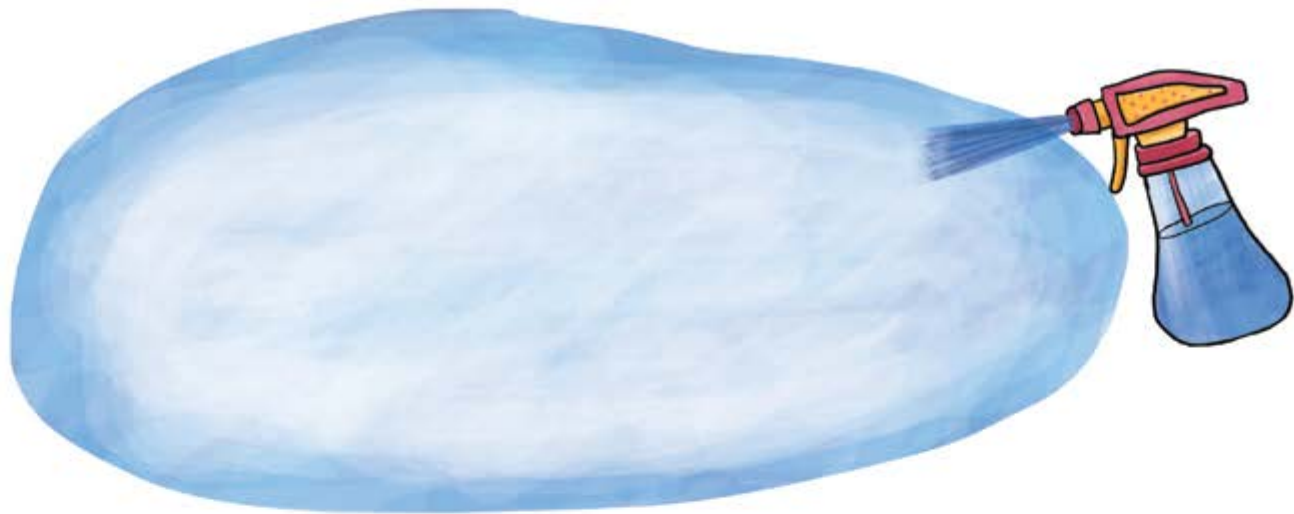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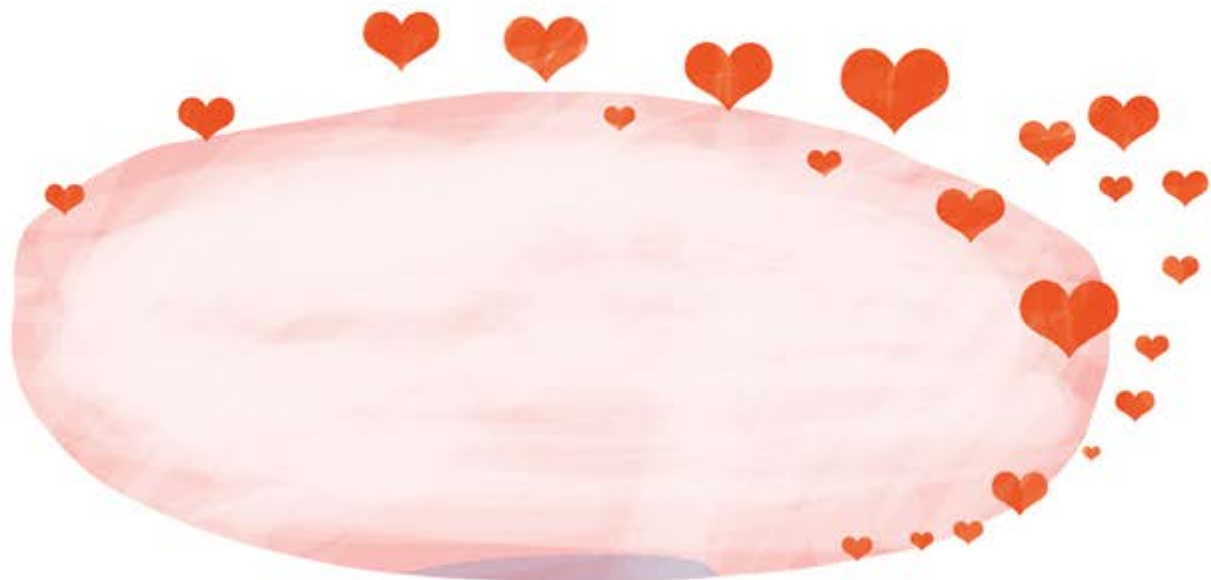


# 생각하는 아이

새싹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햇빛, 물 그리고 흙이 필요해요.  
새싹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 힘이 없어 잘 자라지 못해요.  
새싹을 잘 키우려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두고 매일 물을 줘야 해요.  
햇빛과 물이 없다면 새싹은  
금방 시들어 버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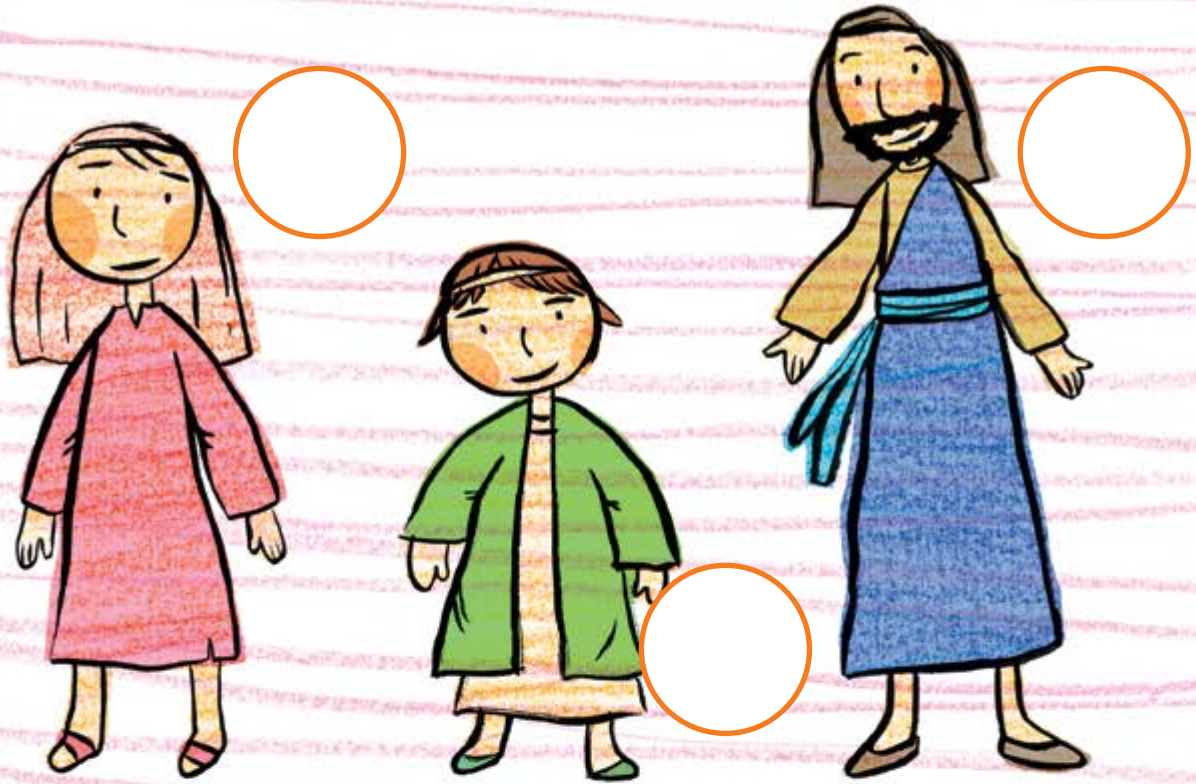


그럼, 예수님을 닮은 마음은 어떻게 하면 자라날까요?  
매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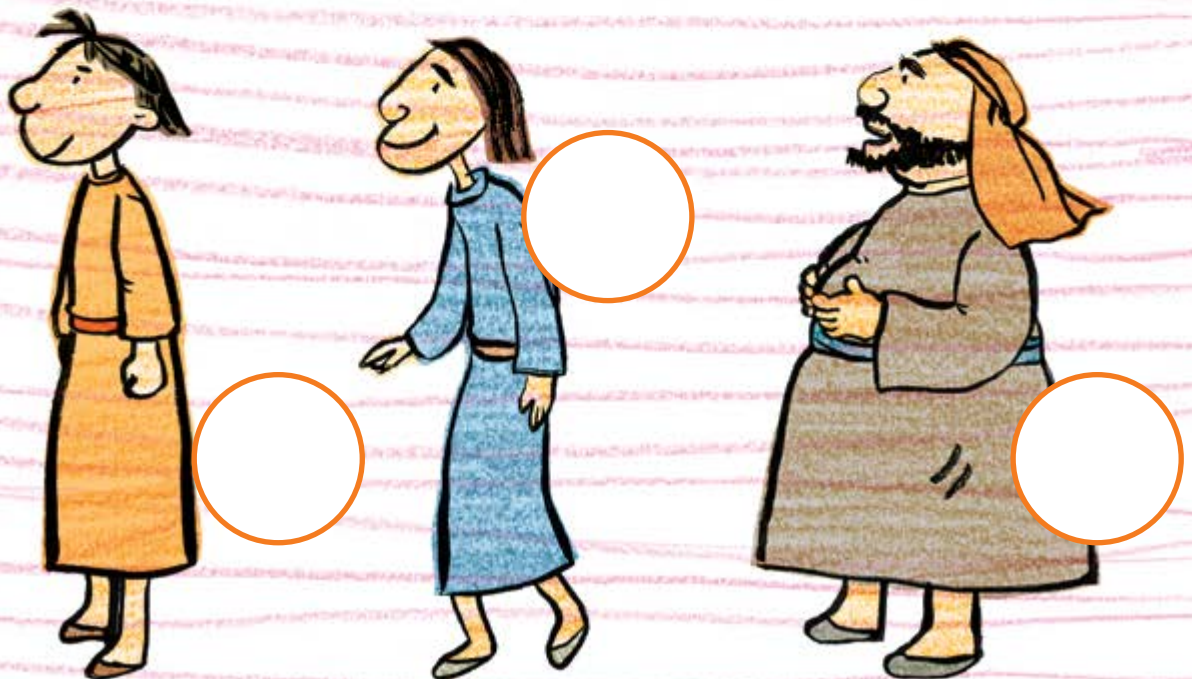


# 즐거은 활동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가장 키가 큰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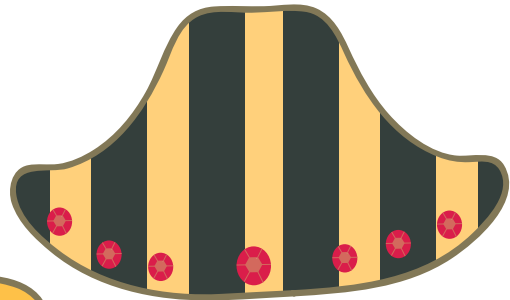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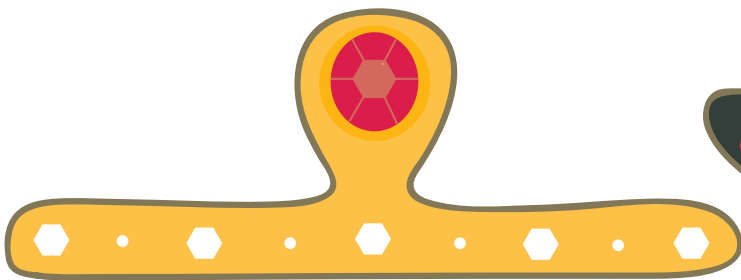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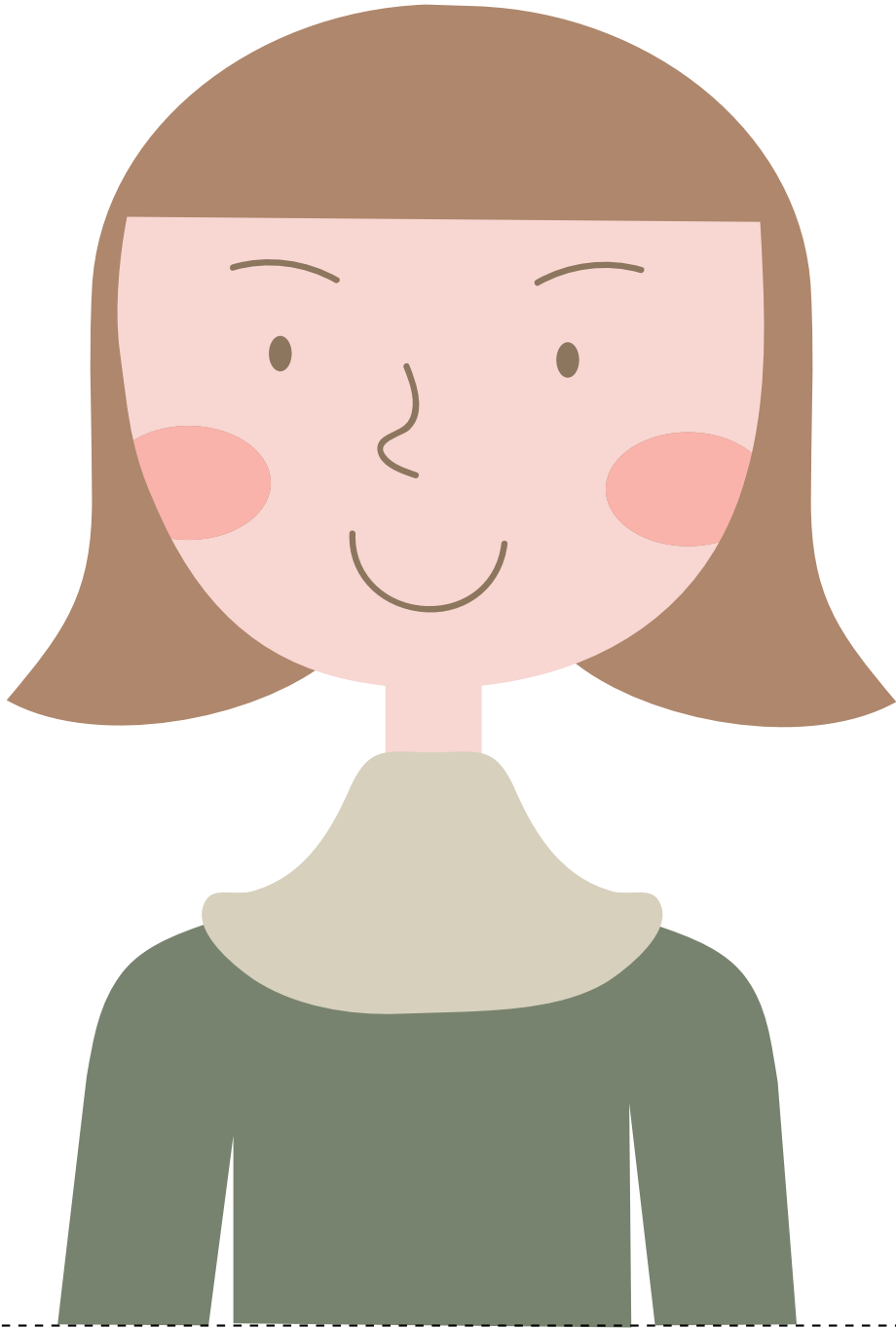


가장 뚱뚱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세요.



밑에 있는 그림을 오려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붙여 주세요.

재밌는 만들기







# 마음속 암송

## 따라 쓰기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사도행전 7장 10절

##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